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71-90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71

김해시 노인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

정 병 두†

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본 연구는 노인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해시 노인정책 연구자료 중 499명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분석에는 모든 투입변수에 유효하게 응답한 492명을 사용하였다. 선배시민 관련 인식은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참여 의지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0~3점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네 지표는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는 선배시민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실천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가치인식이 사회참여 의향과 관련되는 한편, 실제 실천경험에는 자신을 지역사회의 역할주체로 인식하는 자기정체성이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배시민 정책은 인식 개선과 함께 역할정체성 형성 및 실제 참여기회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선배시민, 선배시민 관련 인식, 사회참여 의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자기정체성

† 단독저자 : 정병두, 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진주시 의병로 51, E-mail : jbd0915@hanmail.net
■ 최초투고일 : 2026년 8월 18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년기의 삶을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국가데이터처, 2025; 행정안전부, 2024).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건강과 돌봄, 소득보장뿐 아니라 연장된 노년기를 어떠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4년 65~79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4.8%로 나타나는 등 노년기에도 학습과 사회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국가데이터처, 2025).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는 건강한 노화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는 건강한 노화를 노년기의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배우고 의사결정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은 질병이나 신체기능의 상태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개인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참여에는 이웃과의 교류와 도움, 자원봉사, 평생교육, 문화·여가 및 경제활동뿐 아니라 주민조직 참여, 지역문제 해결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는 개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Townsend, Chen과 Wuthrich(2021)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연령, 건강,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교통과 접근성, 근린환경 및 사회관계망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Li, Cai와 Wamsiedel(2024)도 경제적 안정, 건강, 조직화된 활동과 지역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반면, 신체적 제한, 사회관계망의 축소, 연령차별 및 낮은 디지털 활용능력 등은 참여를 제약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인식과 의향뿐 아니라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시민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국내의 실천적 논의 가운데 하나가 선배시민이다. 선배시민은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생애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문제와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이해하는 관점이다(유범상, 유해숙, 2022). 이는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노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확장하려는 접근이다.

선배시민 관점은 기존의 긍정적 노화 관련 논의와 일정한 접점을 가지면서도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성공적 노화는 질병과 장애의 위험을 낮추고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Rowe & Kahn, 1997), 활동적 노화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

정에 주목한다(WHO, 2002).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축적한 능력과 경험을 유급노동뿐 아니라 자원봉사와 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Bass, Caro, & Chen, 1993), 건강한 노화는 노년기의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WHO, 2020). 이러한 관점들은 노년기의 기능과 활동,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선배시민 관점과 연결된다.

그러나 선배시민 관점은 노인의 건강이나 기능 유지, 활동의 지속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노인을 권리와 역할을 가진 시민적 주체로 바라보고,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며 그 해결과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노년기 시민성 및 노인의 시민적 참여에 관한 논의가 노인의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정치적 참여 등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선배시민과 접점을 가지지만(Serrat, Scharf, Villar, & Gómez, 2020), 선배시민은 여기에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공동체와 후배세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선배'의 역할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배시민을 기존의 성공적・활동적・생산적・건강한 노화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을 시민성, 공동체 참여 및 세대 간 경험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내의 선배시민 관련 연구는 선배시민대학, 시민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교육과 활동을 통해 노인이 자신의 시민적 역할을 재인식하고 공동체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해 왔다(나경희, 노은실, 강상준, 2024; 유미선, 2024; 임종린, 2017; 정지연, 2022).

최근에는 선배시민 관점이 개별 기관의 교육과 자원봉사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유미선, 2025).

이러한 연구들은 선배시민교육과 활동이 노인의 시민적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선배시민대학, 시민교육 또는 자원봉사단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와 사례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참여자의 변화과정과 실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은 해당 용어를 알고 있는지,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하는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하는지,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인식으로 처리하기보다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참여 역시 단일한 결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회참여 의지와 지역문제 해결, 돌봄・길잡이 및 주민조직 참여와 같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높은 참여의향이 있더라도 건강, 이동, 정보, 경제적 여건 또는 활동기회의 부족으로 실제 활동경험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활동경험을 통해 선배시민이라는 개념을 접하거나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횡단면 자료에서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이 사회참여를 일방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전제하기보다, 인식의 각 측면이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에서 어떠한 관련 양상을 보이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 선배시민 연구는 선배시민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노인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일반 노인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선배시민 관련 인식에는 개념에 대한 인지, 자신을 역할주체로 이해하는 자기정체성,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가치평가,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서로 다른 측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참여하려는 의향과 실제 활동경험에서 동일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세부 차원을 구분하고, 사회참여 의지와 실제 실천경험을 별개의 결과로 분석하는 계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가 이루어진 김해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사회참여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역적 맥락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는 지역문제 해결, 다른 노인에 대한 돌봄 또는 후배시민의 길잡이 역할, 주민조직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인식이나 건강상태뿐 아니라 주민 간 관계, 지역조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 실제 참여기회 등 생활권의 조건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지역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장애 여부,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및 독거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거주지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거주지역 자체가 사회참여를 결정한다고 전제하기보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선배시민형 활동경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해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및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건강 관련 특성을 고려한 이후 각 인식지표가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배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인식과 자신을 실제 역할의 주체로 이해하는 자기정체성이 사회참여 의향과 활동경험에서 동일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기보다 그 세부적인 인식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회참여 역시 향후 참여하려는 의향과 실제로 경험한 선배시민형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선배시민교육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일반 노인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어떠한 측면이 사회참여 의향 및 실제 실천경험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기반의 선배시민 교육과 참여정책에서 인식 개선, 역할정체성 형성 및 실제 참여기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각 지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통제한 이후 사회참여 의지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둘째,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각 지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통제한 이후 선배시민형 실천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셋째,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각 지표는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 서로 다른 관련 양상을 보이는가?

2. 선행연구 고찰

1) 선배시민의 개념과 관련 인식

선배시민은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유범상, 유해숙, 2022). 이 관점에서 '선배'는 먼저 살아온 경험을 후배세대 및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며,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선배시민은 노인에 대한 보호나 돌봄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이를 넘어 노인을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동적 노인상과 구별된다.

국내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선배시민교육과 선배시민대학,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발전해 왔다. 임종린(2017)은 선배시민대학 참여자의 사회참여와 역할인식에 관련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정지연(2022)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참여경험을 통해 노인이 시민적 역할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최근 유미선(2024)은 선배시민교육 참여자의 권리 자각과 시민적 역할인식, 공동체 실천이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나경희 외(2024)는 노인시민교육에서 대화와 토론, 공동체 문제의 인식 및 일상적 실천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미선(2025)은 선배시민지원조례 분석을 통해 선배시민 관점이 개별 기관의 교육·자원봉사를 넘어 지방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한다. 용어 인지는 선배시민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경험을, 자기정체성은 자신을 선배시민이라는 역할의 주체로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은 자신의 생애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나 후배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이며,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은 노인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이들 지표는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점수로 합산하기보다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배시민 자기정체성은 단순히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것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용어 인지가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촉을 의미한다면, 자기정체성은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배시민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노인을 사회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선배시민 관점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선배시민 관련 기존 연구에서도 교육과 활동 경험을 통해 노인이 자신을 시민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보고되어 왔다(유미선, 2024; 정지연,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배시민 자기정체성을 일반적인 가치인식과 구별하

여 독립적인 인식지표로 분석하였다.

2)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노인의 사회참여는 이웃돕기와 자원봉사, 문화·여가, 평생교육, 경제활동뿐 아니라 주민조직 참여,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Townsend 외(2021)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연령, 건강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교통, 접근성 및 근린환경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Li 외(2024)는 역시 건강상태, 경제적 조건, 사회관계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활동기회가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으로 구분한다. 사회참여 의지는 이웃돕기, 지역사회 기여, 재능나눔, 문화·예술, 평생교육, 건강증진, 노인일자리·소득활동 및 주민자치·정책참여 등 여덟 개 영역에 대한 향후 참여의향을 의미한다. 반면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지역문제 해결, 다른 노인에 대한 돌봄 또는 후배시민의 길잡이 역할, 주민조직 참여 등 세 가지 활동을 실제로 경험한 영역의 수를 의미한다.

두 변수는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참여의지가 높더라도 건강, 이동, 경제적 여건, 정보 및 활동기회의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활동경험을 통해 선배시민 개념이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은 측정한 활동영역과 시간적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동일 활동에 대한 의도와 행동의 차이로 직접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두 변수를 각각 사회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의향과 선배시민형 활동경험의 범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련성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각 지표는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에서 서로 다른 관련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하거나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은 보다 구체적인 역할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 용어 인지는 선배시민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접한 경험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정체성은 자신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선배시민교육과 자원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과 활동을 통해 노인이 자신의 시민적 역할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이 보고되었다(유미선, 2024; 정지연, 2022).

다만 횡단면 자료에서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이 사회참여를 선행했는지, 또는 기존의 사회활동 경험을 통해 관련 인식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 영향이 아닌 관련성의 수준에서 해석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생활조건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건강상태, 경제적 조건, 일상생활 기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교통과 접근성, 근린환경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등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Li et al., 2024; Townsend et al., 2021). 이러한 요인들은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계에도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주요 인구사회학적・건강 관련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확보 가능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건강 관련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월평균소득,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및 독거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는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조직 참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생활권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건강 관련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각 지표가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배시민 연구는 주로 선배시민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지역사회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여러 지표로 구분하고,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을 별개의 결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김해시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활동 및 정책연구」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염동문, 정병두, 정정란, 김국보, 2025). 원 정책연구는 김해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건강・돌봄 상태, 선배시민 관련 인식, 사회활동 경험과 참여의지 및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여 지역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원조사의 자료수집은 2025년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김해시 소재 노인복지관과 읍・면지역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원이 각 조사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조사목적과 응답내용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방식의 특성상 조사장소를 이용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노인이 상대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자료의 조사대상이 김해시 전체 노인을 확률적으로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김해시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기보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료수집 방식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연구 자료 중 응답자 499명의 자료를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492명의 완전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60~96세였으며 평균연령은 76.45세(SD=6.42)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원 정책조사의 조사대상 범위에 따라 6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을 법적 노인연령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60~96세의 연령 차이를 하나의 범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개인별 연령 차이를 고려하였다. 다만 일부 60~64세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정책연구에서 구축된 조사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필요한 변수로 구성된 비식별화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조사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원조사에서는 조사목적과 응답내용의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공받은 자료를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① 사회참여 의지

본 연구의 사회참여 의지는 선배시민형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향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향을 의미한다. 측정문항은 이웃돕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재능나눔, 문화・예술 활동, 평생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일자리・소득활동 및 주민자치・정책참여 등 총 8개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측정되었으며, 8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 평생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그 자체를 선배시민형 실천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향을 구성하는 활동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선배시민 관점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된 실제 활동경험은 별도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변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참여 의지는 하나의 동일한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표준화 척도라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향후 참여의향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향을 나타내는 다영역 합성지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활동영역의 개별 특성보다는 다양한 사회활동 전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으며, 8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②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응답자가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에 해당하는 활동을 경험한 영역의 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문제 해결 활동, 다른 노인에 대한 돌봄 또는 후배시민의 길잡이 역할, 주민조직 참여 등 세 영역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각 영역은 경험이 없는 경우 0점, 경험이 있는 경우 1점으로 코딩한 후 합산하여 0~3점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배시민형 활동을 경험한 영역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세 영역을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선배시민을 개인적 여가나 자기계발 활동의 참여자로 한정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시민과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에 근거한다(유미선, 2024; 유범상, 유해숙, 2022; 정지연, 2022). 구체적으로 지역문제 해결 활동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를, 다른 노인에 대한 돌봄 또는 후배시민의 길잡이 역할은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사회적 나눔을, 주민조직 참여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각각 반영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세 영역은 하나의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측정한 문항이라기보다 선배시민적 실천이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활동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수는 동일한 잠재특성을 반복 측정한 반영적 척도라기보다 서로 다른 활동영역의 경험 여부를 합산한 형성적 지수로 보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실천역량의 높고 낮음보다는 응답자가 경

험한 선배시민형 활동영역의 범위로 해석하였다.

⑵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네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배시민 용어 인지는 선배시민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아니오'는 0, '예'는 1로 코딩하였다. 이는 선배시민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둘째, 선배시민 자기정체성은 자신을 선배시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아니오'는 0, '예'는 1로 코딩하였다. 이는 자신을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셋째,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또는 후배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은 노인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네 지표는 선배시민 인식을 측정하는 하나의 표준화된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원 정책조사에서 측정된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조작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용어 인지는 선배시민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촉을, 자기정체성은 자신을 선배시민 역할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도를,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은 자신의 생애경험을 공동체의 자원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사회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코딩

구분	변수	측정내용	범위/코딩
종속변수	사회참여 의지	8개 사회활동 영역의 향후 참여의향 평균	1~5점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지역문제 해결, 돌봄·후배시민 길잡이, 주민조직 참여 경험의 합	0~3점
독립변수	선배시민 용어 인지	선배시민 개념을 들어본 경험	아니오=0, 예=1
	선배시민 자기정체성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생각하는지 여부	아니오=0, 예=1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나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1~5점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	노인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5점
통제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0, 남성=1
	연령	만 나이	연속변수
	거주지역	읍·면/동 생활권	읍·면=0, 동=1
	학력	무학~대졸 이상	5단계 순서변수
	월평균소득	소득 없음~250만원 이상	7단계 순서변수
	장애 여부	등록장애 여부	없음=0, 있음=1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평가	1~5점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식사·세면·이동 등의 도움 필요 정도	1~4점
	독거 여부	혼자 거주 여부	비독거=0, 독거=1

주: 사회참여 의지는 서로 다른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의향을 나타내는 합성지수로 처리하였음. 학력과 월평균소득은 원 분석자료의 순서형 코딩을 사용하였음.

참여 필요성 인식은 노인의 공동체 참여에 대한 가치적·규범적 판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분은 선배시민이 단순한 명칭의 인지를 넘어 자신의 경험과 역할을 재해석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적 주체라는 관점에 근거한다(유미선, 2024; 유범상, 유해숙, 2022; 정지연,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지표를 하나의 총점으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3) 통제변수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월평균소득,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및 독거 여부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 0, 남성 1로, 거주지역은 읍·면지역 0, 동지역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무학에서 대졸 이상까지 5단계의 순서변수로, 월평균소득은 소득 없음에서 250만원 이상까지 7단계의 순서변수로 처리하였다.

장애 여부는 등록장애 없음 0, 있음 1로, 독거 여부는 비독거 0, 독거 1로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식사, 세면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1~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간의 이변량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배시민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은 각각 0과 1로 코딩된 이분형 변수이므로 연속형 변수와의 Pearson 상관계수는 점이연상관계수와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월평균소득,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및 독거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선배시민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및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세 가지 활동영역의 경험 여부를 합산한 0~3점의 순서형 변수이며, 다변량 분석대상 492명 가운데 실천경험이 없는 0점 응답자가 238명(48.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측정수준과 분포를 고려하여 누적로짓 연결함수를 이용한 비례오즈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주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사회참여 의지 모형과 동일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ld 통계량, 오즈비(OR) 및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OR이 1보다 큰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다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누적오즈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적합도와 비례오즈 가정을 검토하였다. 비례오즈 가정은 평행선 검정(test of parallel lines)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경험에 대한 주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0~3점의 합산지수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보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주분석과 보조분석에서 주요 독립변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분석대상 499명 중 여성은 332명(66.5%), 남성은 167명(33.5%)이었다. 읍·면지역 거주자는 131명(26.3%), 동지역 거주자는 368명(73.7%)이었다. 평균 연령은 76.45세(SD=6.42)였다. 학력은 고졸 28.5%, 중졸 27.5%, 초졸 26.1% 순이었고, 월평균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72.5%였다.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15.2%, 독거노인은 43.1%였다.

선배시민 용어를 들어본 응답자는 33.3%였고, 자신을 선배시민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7.3%였다. 경험과 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은 평균 3.04점(SD=.94), 노인 사회참여의 필요성 인식은 평균 3.52점(SD=.92)이었다. 사회참여 의지 평균은 2.93점(SD=.90)이었으며,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평균 .94점(SD=1.07)이었다. 실천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48.1%, 1개 영역 22.4%, 2개 영역 17.2%, 3개 영역 모두 경험한 응답자는 12.2%였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선배시민 인식 네 변수는 사회참여 의지 및 선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변수	범주 또는 범위	n(%) 또는 M±SD
성별	여성 / 남성	332(66.5) / 167(33.5)
거주지	읍·면 / 동	131(26.3) / 368(73.7)
학력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이상	37(7.4) / 130(26.1) / 137(27.5) / 142(28.5) / 53(10.6)
월평균소득	없음 / 50만원 미만 / 50~99 / 100~149 / 150~199 / 200~249 / 250만원 이상	130(26.1) / 122(24.4) / 110(22.0) / 55(11.0) / 26(5.2) / 24(4.8) / 32(6.4)
장애유무	없음 / 있음	423(84.8) / 76(15.2)
독거여부	비독거 / 독거	284(56.9) / 215(43.1)
연령	60~96세	76.45±6.42
건강상태	1~5점	3.00±.82
일상생활도움	1~4점	1.25±.53
선배시민 용어인지	아니오 / 예	333(66.7) / 166(33.3)
선배시민 자기정체성	아니오 / 예	313(62.7) / 186(37.3)
경험·지혜 유용성	1~5점	3.04±.94
사회참여 필요성	1~5점	3.52±.92
사회참여 의지	1~5점	2.93±.90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0~3점	.94±1.07

주: M=평균, SD=표준편차. 비율은 각 변수의 유효응답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변수	M	SD	1	2	3	4	5	6
1. 용어인지	.333	.472	1					
2. 자기정체성	.373	.484	.388**	1				
3. 경험・지혜 유용성	3.036	.939	.240**	.355**	1			
4. 사회참여 필요성	3.519	.923	.202**	.213**	.511**	1		
5. 사회참여 의지	2.925	.896	.267**	.264**	.362**	.349**	1	
6.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936	1.068	.329**	.342**	.202**	.121**	.317**	1

주: N＝499. 용어인지와 자기정체성은 0/1 변수이므로 평균은 '예' 응답비율을 의미함. ** p<.01.

배시민형 실천경험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참여 의지는 용어인지(r=.267), 자기정체성(r=.264), 경험・지혜의 유용성 인식(r=.362),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r=.349)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용어인지(r=.329), 자기정체성(r=.342), 경험・지혜의 유용성 인식(r=.202),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r=.12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의 상관은 r=.317이었다. 인식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은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과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 간의 r=.511이었다. 다중공선성 여부는 후속 회귀분석에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선배시민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의 관계

선배시민 인식이 사회참여 의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모든 변수에 유효한 응답을 한 492명이 포함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투입된 변수들은 사회참여 의지 변량의 29.9%를 설명하였다(R=.547, R^2=.299, 수정된 R^2=.280, F=15.711, p<.001).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636~.905, VIF는 1.105~1.571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가 .10보다 크고 VIF가 10보다 낮았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인 VIF 5 미만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배시민 인식의 네 변수는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선배시민 용어를 들어본 응답자는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보다 사회참여 의지가 .187점 높았으며(B=.187, β=.098, p=.022), 자신을 선배시민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사회참여 의지가 .220점 높았다(B=.220, β=.119, p=.007).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나 후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1점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지는 .168점 높게 나타났으며(B=.168, β=.177, p<.001), 노인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1점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지는 .166점 높게 나타났다(B=.166, β=.170, p<.001).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β=.177)과 노인 사회참여의 필요성 인식(β=.170)이 사회참여 의지와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네 지표가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며, 인식지표별 관련성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사회참여 의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변수	B	SE	β	t	p	공차한계	VIF
성별(남성=1)	-.077	.082	-.041	-.943	.346	.782	1.279
연령	-.017	.006	-.123	-2.867	.004	.800	1.250
거주지(동=1)	-.046	.082	-.022	-.558	.577	.903	1.108
학력	.072	.038	.090	1.875	.061	.636	1.571
월평균소득	.050	.022	.099	2.343	.020	.824	1.213
장애유무(있음=1)	-.073	.099	-.029	-.733	.464	.905	1.105
건강상태	.139	.047	.127	2.965	.003	.793	1.261
일상생활도움	.085	.069	.051	1.234	.218	.860	1.163
독거여부(독거=1)	-.080	.076	-.044	-1.042	.298	.814	1.228
선배시민 용어인지	.187	.081	.098	2.289	.022	.795	1.258
선배시민 자기정체성	.220	.081	.119	2.705	.007	.754	1.327
경험・지혜 유용성	.168	.045	.177	3.758	<.001	.662	1.511
사회참여 필요성	.166	.044	.170	3.742	<.001	.707	1.414

주: N=492, R=.547, R^2=.299, 수정된 R^2=.280, F(13,478)=15.711, p<.001, B=비표준화 회귀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회귀계수, VIF=분산팽창지수.

4) 선배시민 인식과 실천경험의 관계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0~3점의 순서형 변수이며, 분석대상 492명 가운데 0점은 238명(48.4%), 1점은 111명(22.6%), 2점은 84명(17.1%), 3점은 59명(12.0%)이었다. 이에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을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절편만 포함한 모형의 -2로그우도는 1,223.460이었으며, 독립변수를 투입한 최종모형에서는 1,098.547로 감소하였다. 최종모형과 절편모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124.913, df=13, p<.001). 이는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의 유사 결정계수(pseudo R^2)는 Cox와 Snell R^2=.224, Nagelkerke R^2=.245, McFadden R^2=.102였다. Pearson 적합도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χ^2=1,481.534, df=1,460, p=.341), 편차 적합도 검정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χ^2=1,098.547, df=1,460, p=1.000).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비례오즈 가정을 검증한 평행선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27.375, df=26, p=.390). 따라서 각 종속변수 범주를 구분하는 누적로짓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비례오즈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배시민 인식 중에서는 선배시민 용어인지와 자기정체성이 실천경험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선배시민 개념을 들어본 노인은 들어보지 못한 노인보다 더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오즈가 2.363배 높았다(B=.860, OR=2.363, 95% CI=1.586~3.518, p<.001).

또한 자신을 선배시민이라고 인식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오즈가 2.363배 높았다(B=.860, OR=2.363, 95% CI=1.586~3.525, p<.001).

반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나 후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정적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B=.208, OR=1.231, 95% CI=.980~1.545, p=.074). 노인

<표 5>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B	SE	Wald	OR	95% CI	p
성별(남성=1)	.033	.209	.025	1.034	.686~1.559	.875
연령	.018	.015	1.421	1.018	.988~1.049	.233
거주지(동=1)	-1.127	.206	29.940	.324	.217~.485	<.001
학력	-.114	.099	1.319	.892	.736~1.083	.251
월평균소득	.080	.055	2.067	1.083	.971~1.207	.151
장애유무(있음=1)	.065	.256	.065	1.067	.647~1.761	.799
건강상태	-.026	.121	.047	.974	.768~1.235	.828
일상생활도움	-.226	.180	1.577	.798	.560~1.135	.209
독거여부(독거=1)	-.096	.197	.239	.908	.618~1.336	.625
선배시민 용어인지	.860	.203	17.857	2.363	1.586~3.518	<.001
선배시민 자기정체성	.860	.204	17.802	2.363	1.586~3.525	<.001
경험·지혜 유용성	.208	.116	3.199	1.231	.980~1.545	.074
사회참여 필요성	.058	.115	.254	1.060	.845~1.327	.614

주: N=492. 종속변수는 선배시민형 실천경험 0~3점이다. OR=오즈비, CI=신뢰구간. 모형 $\chi^2(13)=124.913$, $p<.001$; Cox와 Snell $R^2=.224$; Nagelkerke $R^2=.245$; McFadden $R^2=.102$. 평행선 검정 $\chi^2(26)=27.375$, $p=.390$.

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실천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058, OR=1.060, 95% CI=.845~1.327, p=.614).

통제변수 가운데 거주지역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동지역 거주자는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더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오즈가 낮았다(B=-1.127, OR=.324, 95% CI=.217~.485, p<.001).

거주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및 독거 여부는 선배시민형 실천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 가운데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이 실천경험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인식지표별로 서로 다른 관련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5) 선배시민 인식과 실천경험의 보조분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을 0~3점의 연속형 지수로 간주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배시민 용어인지(β=.198, p<.001)와 자기정체성(β=.215, p<.001)은 실천경험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과 노인 사회참여의 필요성 인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조분석의 유의변수와 관계의 방향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종속변수의 분석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선배시민 용어인지, 자기정체성 및 거주지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5. 논 의

본 연구는 김해시 노인정책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및 사회참여

<표 6>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변수	B	SE	β	t	p
성별(남성=1)	.061	.102	.027	.597	.550
연령	.006	.007	.034	.754	.451
거주지(동=1)	-.585	.102	-.241	-5.736	<.001
학력	-.046	.047	-.048	-.964	.336
월평균소득	.046	.027	.076	1.719	.086
장애유무(있음=1)	.018	.123	.006	.147	.883
건강상태	-.035	.058	-.027	-.604	.546
일상생활도움	-.116	.086	-.058	-1.347	.179
독거여부(독거=1)	-.039	.095	-.018	-.406	.685
선배시민 용어인지	.449	.101	.198	4.437	<.001
선배시민 자기정체성	.472	.101	.215	4.671	<.001
경험·지혜 유용성	.077	.056	.068	1.386	.166
사회참여 필요성	.025	.055	.022	.456	.649

주: N=492, R=.490, R^2=.240, 수정된 R^2=.219, F(13,478)=11.590, p<.001.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은 0~3점 합산지수이며, B는 실천경험 점수의 평균 차이를 의미함.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인식이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선배시민 관련 인식은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는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만 유의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이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되기보다 인식의 성격과 참여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네 지표가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정적으로 관련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β=.177)과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β=.170)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생애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와 후배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노인의 사회참여가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시민교육이 단순히 특정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노인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미선(2024)은 선배시민교육 참여자의 경험에서 권리에 대한 자각과 시민적 역할인식, 공동체 실천이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참여 의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계량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참여 의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의지가 낮게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지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의지가 선배시민 관련 가치인식뿐 아니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경제적 자원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hin, Kang, Choi와 Choi(2024)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일상생활 기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Li 외(2024)는 건강상태, 경제적 안정, 사회관계망과 지역사회 기반시설 등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이므로 연령, 소득 또는 건강상태가 사회참여 의지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석하기보다 이들 특성이 참여의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결과는 선배시민 자기정체성이 사회참여 의지뿐 아니라 실제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도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는 네 가지 인식 가운데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응답자와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오즈가 각각 약 2.36배 높았다. 반면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과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은 실천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배시민과 관련한 일반적 가치인식과 자신을 실제 역할의 주체로 인식하는 자기정체성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정체성은 단순히 '노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인식에 가깝다. 유미선(2024)의 연구에서도 선배시민교육 참여자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정체성이 사회참여 의지뿐 아니라 실천경험과도 관련되었다는 결과는 선배시민 연구에서 역할정체성을 별도의 인식지표로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이 실천경험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배시민의 개념을 알고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자원봉사나 주민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배시민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자기정체성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용어 인지나 자기정체성이 실천을 '촉진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두 변수가 실천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거주지역은 사회참여 의지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동지역 거주자는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더 높은 실천경험 범주에 속할 오즈가 낮았다(OR=.324). 이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전반적인 의향보다 지역문제 해결, 돌봄・길잡이 및 주민조직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이 생활권의 특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읍・면지역의 참여환경이 동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Shin 외(2024)의 연구에서는 일부 적극적 사회활동 유형에서 수도권 거주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지역적 양상이 보고되었다. 이는 거주지역 자체의 일관된 효과라기보다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활동의 유형과 지역별 관계망, 조직 및 활동기회의 차이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실천경험은 일반적인 여가나 교육활동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과 돌봄・길잡이, 주민조직 참여를 측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거주지역과 조사장소 또는 기관이용 특성이 일부 중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조사대상자가 접촉된 기관이나 조사장소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거주지역의 차이에는 생활권의 특성뿐 아니라 기관 이용 및 조사장소의 특성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동지역과 읍・면지역 자체의 사회참여 환경 차이에 따른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기관 유형, 지역사회 관계망, 시설 접근성 및 구체적인 참여기회를 함께 측정하여 거주지역과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는 연령, 소득 및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회참여 의지의 결과와 구별된다. 사회참여 의지는 향후 활동에 대한 의향을 측정한 반면, 실천경험은 지역문제 해결, 돌봄・길잡이 및 주민조직 참여를 경험한 영역의 수를 측정한다. 따라서 두 결과변수에서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이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두 변수는 측정한 활동영역과 시간적 기준도 다르므로 이를 일반적인 '의도와 행동의 격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네 지표로 구분함으로써 각 인식지표가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에서 동일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 의지에서는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과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반면, 실천경험에서는 선배시민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생활권에 따라 실천경험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개인의 인식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지역적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세부 차원과 사회참여의 서로 다른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김해시 노인정책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용어 인지, 자기정체성, 경험・지혜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및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인식과 사회참여 의지 및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인식지표는 모두 사회참여 의지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서는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만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이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되기보다 인식의 성격과 참여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배시민 정책과 교육은 선배시민이라는 명칭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을 공동체의 역할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배시민교육에 생애경험의 성찰, 지역사회 문제의 발견, 자신의 경험과 지역문제의 연결, 수행 가능한 역할 탐색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선배시민 관련 가치인식을 높이는 것과 역할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선배시민교육과 실제 지역사회 활동을 분리하기보다 교육 이후 구체적인 실천기회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정체성이 실천경험과 유의하게 관련된 결과를 고려하면, 노인이 자신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하는 것과 실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활

동, 이웃돌봄, 후배세대와의 경험나눔, 주민조직 및 지역회의 참여 등 비교적 접근 가능한 활동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참여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와 후속 활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참여 의지가 연령, 소득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여건에 따라 참여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이거나 건강・경제적 제약이 있는 노인을 위해 가까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이동과 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 단시간 또는 저강도의 참여방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주지역에 따른 실천경험 차이는 조사장소 및 기관 이용 특성과 일부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지역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해석하기보다 생활권별 주민관계, 기관 접근성 및 실제 참여기회를 추가로 파악한 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참여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네 가지 지표로 구분하고, 사회참여 의지와 선배시민형 실천경험을 별도의 결과변수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선배시민 연구가 교육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인식의 각 지표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 사회참여 간의 시간적 순서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조사대상이 김해시에 한정되고 복지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셋째, 용어 인지와 자기정체성 등 일부 인식지표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사회참여 의지는 이웃돕기, 지역사회 기여, 문화・예술, 평생교육, 건강증진, 노인일자리 및 주민자치・정책참여 등 서로 다른 활동영역의 참여의향을 평균한 합성지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개별 활동유형에 대한 참여의향의 차이를 보여주기보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의향과 선배시민 관련 인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활동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여 선배시민 관련 인식과의 관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참여 의지와 실천경험은 측정한 활동영역과 시간적 기준이 서로 달라 동일 활동에 대한 의도와 행동의 차이로 직접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60~64세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배시민 관련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전후를 반복 측정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식과 역할정체성 및 실천경험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 지역사회 소속감, 활동정보, 접근성 및 참여기회 등 환경적 요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선배시민 관련 인식이 구체적인 사회참여와 어떠한 조건에서 연결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선배시민 정책은 노인을 단순한 참여대상으로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주체로 자신을 이해하며 실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의 시민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선배시민 실천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데이터처 (2025. 9. 29). 202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Available: https://www.kostat.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no=438832&mid=a10301010000

나경희 · 노은실 · 강상준 (2024). 영화를 매개로 한 노인시민교육 사례연구: '찾아가는 실버시티즌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6(4), 51-86.

염동문 · 정병두 · 정정란 · 김국보 (2025).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활동 및 정책연구>. 김해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유미선 (2024). 노인복지관 선배시민교육 참여자의 지역사회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6(2), 195-223.

유미선 (2025). 시민권 기반 노인복지의 제도화: 선배시민지원조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80(3), 201-226.

유범상 · 유해숙 (2022).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마북.

임종린 (2017). 선배시민 사회참여 및 역할인식 증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선배시민대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1-31.

정지연 (2022). 노인세대의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행정안전부 (2024. 12. 2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462

Bass, S. A., Caro, F. G., & Chen, Y.-P. (Eds.). (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Li, J., Cai, X., & Wamsiedel, M. (2024). Perceptions, opportunities and barriers of social engagement among the Chinese older adults: A qualitative study. *BMC Geriatrics*, 24, 1033.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Serrat, R., Scharf, T., Villar, F., & Gómez, C. (2020). Fifty-five years of research into older people's civic participation: Recent trends, future directions. *The Gerontologist,* 60(1), e38-e51.

Shin, J., Kang, H., Choi, S., & Choi, J. (2024). Exploring social activity pattern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 latent class analysis. *BMC Geriatrics*, 24, 697.

Townsend, B. G., Chen, J. T.-H., & Wuthrich, V. M. (2021).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social participat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linical Gerontologist*, 44(4), 359-38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Decade of healthy ageing: Baseline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ssociations of Seonbae Citizen-Related Perceptions with the Willingness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Seonbae Citizen-Type Practical Engagement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in Gimhae City

Byung-Doo Jung

Dep. of Social Welfare, Jinju Health Colleg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s of Seonbae Citizen-related perceptions with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and Seonbae Citizen-type practical engagement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Data from 499 respondents to a Gimhae City older adult policy study were analyzed, and 492 complete cases were used for multivariate analyses. Seonbae Citizen-related perceptions were classified into awareness of the term, self-identification, perceived social usefulness of one's experience and wisdom, and perceived necessity of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practical engagement experiences scored from 0 to 3. All four Seonbae Citizen-related perception indicat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Awareness of the term and self-identific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onbae Citizen-type practical engagement experiences, and differences in practical engagement were also observed by residential a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value-related perceptions of Seonbae Citizenship may be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whereas self-identification as a Seonbae Citizen may be particularly relevant to practical engagement. Seonbae Citizen policies should connect perception-building and role identity with concrete opportunitie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Keywords: Seonbae Citizen, Seonbae Citizen-Related Perceptions, Willingness for Social Participation, Seonbae Citizen-Type Practical Engagement Experiences, Self-Identification